전북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강화

전북테크노파크, 위기대응협의회 개최… 하반기 위기징후 단계 · 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전북테크노파크는 22일 본부동 교육장에서 '2026년 제2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분석과 하반기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결과와 위기징후 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 위기징후 단계 결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반기별로 위기징후 단계를 결정해 주의 또는 심각 단계로 분류된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Stand-up 맞춤지원' 등 긴급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전북테크노파크 등 도내 주요 혁신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기징후 지역의 원인 분석,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현장 심층조사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며 지역별 위기징후 단계 결정(안)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수요가 충실히 반영된 위기징후 단계 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위기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결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지역중소기업지원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확정 통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상생 · ESG 경영 실천

한국전기안전공사, 주민참여위원회 갖고 성과 공유 · 의견 수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열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의 이행 현황과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던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례'에 대한 사후 성과가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공사는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완주군청과 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가전제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범위 확대와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자립준비청년 정서지원사업, '안아드림' 토크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디자인 · 브랜딩 접목' 특산품 경쟁력 높인다

중기부,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고창 · 보은 · 진도 3개 지역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특산품에 디자인과 브랜딩을 접목해 전국적인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나선다. 전북 고창군을 비롯해 충북 보은군, 전남 진도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경제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들이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공동 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판로 확대는 물론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지역은 충북 보은군, 전남 진도군, 전북 고창군으로 각 지역에는 총 4억3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상품 개발과 디자인·브랜딩 개선,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은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대추와 한우를 활용해 야영(캠핑) 상품과 반려견 동반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 특산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진도군은 울금과 김, 해조류 등 지역 특산품을 하나의 공동 브랜드 상품으로 묶어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포장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를 개선하고 온라인 판매와 백화점 기획전, 지역축제 등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고창군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해 가공식품과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체험·판매 공간을 연계해 관광객 소비가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투입해 과제별 브랜드 전략 수립과 상품 디자인 기획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품이 단순한 지역 상품을 넘어 전국 소비자들이 찾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오상근 기자

환경특사경 수사 역량 강화 나서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북지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찰과 협력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23일 환경청 2층 대강당에서 환경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14개 시·군 환경특별사법경찰관(환경특사경) 및 환경 분야 지도·점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특사경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전북지역에는 약 1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환경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지도·점검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주지방검찰청 박형중 검사를 초빙해 실제 수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인프라 협력

국민연금공단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확보하며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가 체결한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업무 전환'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은 인공지능 인프라 설계부터 운영, 서비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인공지능 환경 구현을 위한 GPU 서버 구축 및 기술 지원 △카카오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활용 △인공지능 모델 테스트 및 실증 환경 조성 △공공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제도·행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최고 연 7% 금리 'JB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북은행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최고 연 7%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JB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2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인 'JB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JB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5.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0%의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납입 방식은 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전북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산 나리 경쟁력 현장서 검증

농촌진흥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 나리(백합)의 생산성과 시장성을 현장에서 검증하며 보급 확대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의 한 나리 재배농장에서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2026 나리 공동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품종 개발 단계부터 현장 보급 가능성까지 생산자와 연구기관이 함께 점검하는 협력형 행사로 마련됐다. 국산 나리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품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국내 육성 나리 5품종과 품종 등록을 앞둔 우수 계통 7점이 공개됐다. 참석자들은 생육 상태와 절화 품질, 모종 적응성, 재배 편의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보급 가능성을 점검했다.

연구진은 각 품종과 계통의 특성을 설명하고, 생산자들은 재배 과정에서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성을, 유통 관계자들은 소비자 선호도와 상품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우수 국산 나리 품종의 보급 확대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